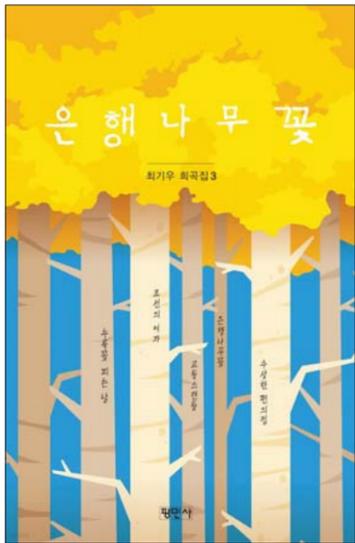


극작가 최기우, '은행나무꽃' 발간

세 번째 희곡집으로 누룩꽃 피는 날 · 교동스캔들 · 은행나무꽃 · 수상한 편의점 · 조선의 여자 등 실려

극작가 최기우가 세 번째 희곡집 '은행나무꽃'을 발간했다. 이번 희곡집에는 '누룩꽃 피는 날'과 '교동스캔들', '은행나무꽃', '수상한 편의점', '조선의 여자' 등 다섯 편이 실렸다.



극작가 최기우가 세 번째 희곡집 '은행나무꽃'을 발간했다.

고 안주가 나오는 방식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전주의 막걸리집들처럼 작품은 갖가지 이야기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70·80년대 전주의 예술인들과 주객의 발길을 붙잡은 선

술집 · 학사주점, 막걸리집보다 더 부산했던 백반집 · 닭내장탕집. 빈 주전자와 늘어날수록 더 근사한 안주들이 나오는 것처럼 작품 속 구수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더 아련한 기억들이 깨 내진다.

'조선의 여자'는 태평양전쟁과 위안부, 창씨개명, 신사참배, 미군정 등 1940년대 해방을 전후로 긴박하게 살았을 우리의 거친 가족사와 그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 서글프게 담겨 있다. 소리를 좋아하는 열일곱 살 처녀 송동심을 중심으로 한 가족 이야기가 그려지지만, 속내는 국가의 폭력과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편 최 작가는 제36회 전북연극제에서 희곡상을 받았으며, 2020년 한국극작가협회의 한국 희곡명작선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한 최기우 작가는 연극 · 창극 · 뮤지컬 · 창작판소리 등 무대극에 집중하며 10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전라북도의 인물과 문화, 역사와 언어, 민중의 삶과 유희, 흥과 콘텐트를 소재로 한 집필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최기우 작가(최명희문화관 관장)는 "각 작품의 단어와 문장과 문단과 행간의 사연들이 이 땅의 역사를 더 풍성하고 담담하게 하길 바라며,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고 입말을 타면서 근사하게 익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규방, 일화' 특별전시

내달 17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 전승공예가 공예품 만날 수 있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이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규방, 일화'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2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 중인 공예작품 일부를 엄선해 선보이는 자리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전승공예가의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다.

타일을 '규방, 일화'는 전통 가옥에서 여성들의 생활공간이 되는 안채의 방을 의미하는 '규방'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뜻하는 '일화'를 합한 말로, 여성들의 규방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장인의 조선시대 장옷(장의)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혜순 장인의말화호 리빙상작노리개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허한상수 장인의 봉황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인들의 작품 37점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침선, 매듭, 자수 등의 전통 공예기술로 만들어진 선조들의 의복과 장신구로 우리 선조들의 품의와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규방문화로 꽃피운 우리 수공예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국립무



제107호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 조선시대 장옷(장의).

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 은행제는 전승자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돼, 우리 공예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쉽게 볼 수 없는 전승공예품이 한자리에 마련돼 공예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현장 관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으며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이나 '규방, 일화'를 검색하면 된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2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김윤상 기자

한국 근현대미술사 대가 작품 정음서 만난다

정음서립미술관, 12월 12일까지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대표작가 49명 70여점 기획전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시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7일 정음서립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미술관 지원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국립미술관 협력 전시사업'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린다.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를 대표하는 대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큰 줄기를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은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남향집> 작가 오지호, 도상봉, 김기창, 이종섭, 변월룡, 장욱진, 김환기, 이우환, 박인식, 김구림, 이강소 등 한국 대표작가 49명의 작품 70여 점이 출품된다.

전시구성은 시대별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눠 근현대미술사의 근간을 이루는 1930-40년대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1전시실은 '근대미술을 꽃 피우다'를 주제로

1930년대부터 1950년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 이후 일본 유학파들의 서양화풍 경향과 1920~30년대 한국의 서정성과 향토성을 담아낸 인물화, 풍경화, 산수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2전시실 '추상미술을 실험하다'에서는 1950년대 현대미술 맥락 속에서 시작된 추상미술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김환기, 유영국, 하인두, 박서보 등의 작업으로 전개되는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아우르는 3전시실은 '배제예술로 확장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두꺼운 채색 표현을 포용하는 화풍과 반하는 차가운 기하학 추상을 비롯해 탈 평면, 오브제, 설치, 퍼포먼스 작업의 경향이 두드러졌던 1970년대 미술을 만나볼 수 있다. 또 1980년 리얼리즘 회화와 1990년대 이후 백남준, 박

현기 등의 비디오 작업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개인 소독제 구비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정해진 동선으로 관람할 수 있다.

단체이용(관람)과 전시 해설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과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자를 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 가능하며(오후 5시 입장 마감)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정음 시민은 2,000원, 지역 외 거주자는 5,000원이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음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김환기, 이종섭, 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1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사업' 공모에 연속지원 선정돼 국비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교육은 9월부터 시작해 11월 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남원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연계형 한복을 입고 관광투어 및 남원에온 인근관광지를 돌면서 문제를 푸는 '남원판 런닝맨'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복문화에 대한 체계

적인 한복교육과 문화가치를 알리기 위한 '중학교 1학년대상 자유학기제 편성' 및 '코로나 19 대비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1 초중고 한복문화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부권 지역 및 관내학교를 통해 관광자원연계 및 자유학기제 참여모집을 완료했으며, 비대면 교육모집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620-565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국내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이 오는 10일 대학본관 222호 및 웹엑스 온라인 회의실에서 '근대 유학의 문화 지형과 조선학'을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근대의 학문 지형과 유학, 그리고 그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서 '조선학', '조선적인 것'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연구단 아젠다인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이다. 변주승 단장의 개회사와 전종윤 교수의 사회로 총 6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변주승 단장은 "이번 국내학술대회를 통해 일제강점기 근대의 학문 지형과 유학, 그리고 그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서 '조선학', '조선적인 것'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연구단 아젠다인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신천지 예수교 도마지파

온라인 말씀 대성회

주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30, 저녁 7:30

강사: (전주)김창희 강사 / (익산, 군산, 정읍)담임 강사 신앙상담_010.2220.4208